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 고변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필자: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외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53호
서기 2002년 1월 23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일상에서 마음속 부처님 찾으라

답돌이 하는 마음자세

문 선원 도량에 도량답을 얼마 전에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을 세우신 연유가 무엇이고 답돌이를 하는 마음 자세는 또한 어떠한가 하시지 궁금합니다.

답 여러분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 놓고 답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 걸 모르기 때문에 형상으로 답을 만들어 놓고 답돌이를 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맨날 답돌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루종일 움직이면서 돌아가는 그게 답돌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죠? 죽어서 뭘 돌아 나오든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씨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형상을 하는 거지 어디 끊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이 도리를 아시란 말입니다.

이해만 하고 이론적으로 알기만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일체 나쁘고 좋은 것을 다 자기 주인공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공(空)에서 나온 거 공에다 놔라, 맡겨놓고 믿어라, 지켜봐라. 그러면 출연히 참이라는 게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수의 맛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요렇게도 맛이 나고 조렇게도 맛이 나고, 천차만별로 좋은 맛이 있는데, 도대체 그 맛은 정말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좋은 꿈 나쁜 꿈 마음먹기 달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 참선인 줄 아셔서 안 됩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고 이렇게 도는 것도 다 참선이예요. 다! 여러분은 "번소에서 어떻게 부처님 생각을 합니까?" 이러거든요. 아, 자기가 번소에 있으니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해가 동구덩이는 안 비쭈니까? 동구덩이라고 해가 돌아서 깨끗한 데로만 해가 가던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으니 그런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돌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답돌이를 하고 들어온 그 여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답돌이를 했느냐 하고 물으니, 저 탑이 성스럽고 부처님의 자리가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들이 그렇게 그 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답돌이를 하고 왔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내 진정한 마음, 수많은 우주간 법계에, 위로는 삼세의 부처님들이나 역대 조사들, 선지식들, 유생 무생이 다 한데 합친 내공의 탑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전을 다 돌아도 끝이 없는 돌이 바로 답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답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는데' 요런 고정된 관념 속에서 도는 게 아니라, 우주 만유의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그 향과 밝음이 이 대천세계에 다 비추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답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공에 있는 마음에 밝음이 없다면 그 밝은 빛을 서로 서로가 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밝히고자 해서, 또 내 마음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역력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고, 생활을 하면서 내면의 부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답을 도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내공의 답을 다 밝혀서 사시기 바랍니다.

태몽 의미는?

문 옛날 어른들은 태몽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여 함부로 발설도 하지 않으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이 우리 생활에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남아 있다고 봅니다. 태몽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답 우리가 사는 데도 지역 지역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물에서 사는 생명체가 공부를 해서 인간으로 환생을 한다면, 말하자면 물에서 사는 것이 보이는 태몽으로, 물에서 나와서 보이는 이치가 있고요. 또 산에서 생기는 거는 산에서 보이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떠한 물체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예요. 뱀을 보았다고 해도 뱀으로 보지 말고 용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서는 것을 용(用)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글자 없는 표시인데 그게 용으로 보았다고 해서, 말하자면 옛날에 글자 모르는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통보를 하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관을 그려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듯이, 꿈에 보이는 거는 좀 바뀌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꿈 그대로 봐 버리면 험합니다. 그대로만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큰 용을 봤다 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에 아주 화력이 대단하게, 크게 화력을 펼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용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용이 꿈에 여의주를 물었다 이럴 때는, 본래의 그 사람이 살 때 많은 공을 닦고 공덕을 받아서 그 공덕 안에 여의주를 받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이 움직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스럽게 무(無)의 세계나 유(有)의 세계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빛날 수 있다는 거를 표시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배를 얻었다는 경우도 있는데, 먹는 배를 볼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도 원한도 사지 않고, 동물들에게도 원한을 사지 않고 아주 온순하게 세상을 살았다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공자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공자님 어머니가 6년을, 좋은 아들을 달라고 빌었는데 6년을 다녀도 영 태기가 있지 않았습다.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 해에는 안 가고 있는데, 꿈에 거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주려고 영령들이 들어오는 대로 아무리 골라도 지금까지 그런 좋은 영령들을 고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골라 왔으니까 빨리 오너라." 이래서 7년 되던 해에 거길 갔던 말입니다. 갔다 와 가지곤 바로 태기가 있어서 낳은 분이 공자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태고라고 할 때도 마음을 오직 태고를 위해서 쓴다면 위치나 성격 모든 것을 달라는 대로, 형상도 좋게 보았되 게끔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을 지혜롭게 물리가 터진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끔 자꾸자꾸 거기가다 맡겨 놓으면 그게 다 같이 한마음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라고 하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낳기만 한다고 수가 아닙니다. 좋은 영령들을 갖다가 인연을 삼아야지 좋은 영령이 아니라면 항상 부딪치고 싸우고 그렇게 되니까 좋은 영령으로 인연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꿈을 어떻게 꿴는지 거기는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한 사람의 성격도, 여러 안 좋은 조건들도 바뀌게 놓을 수가 있는 것이 이 마음의 작용인데 하물며 꿈이겠습니까?

니까. 그러니 나쁘게 꿈을 꿴다 해서 이렇 거지 저렇 거지 걱정하기 보다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한마음 자리에서 다 통신할 수 있게끔 맡겨 놓으시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함미 없이 행하며 살려면

문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행하려 하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어 여쭙니다. 일에서 손을 놓고 있을 땐 조금 여려한 듯 하다가도 일을 시작하여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겠다 하면 생각을 놓쳐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함미 없이 행하라' '생각함이 없이 생각

너 한 거냐 그거요? 그렇다면 개별적인 너가 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너가 한 거라는 소립니다.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혼자 먹고 살 양으로, 혼자 누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공동으로,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하지 말고 내 주인공으로서 한마음이, 한마음 속에 주인공이 하는 거니깐 나는 심부름만 해준다 한다면 그렇게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해롭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또한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아주 규모있게 잘, 즉 말하자면 중도에서 잘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함미 없이 하신다 이

데 그것이 이치에 닿아 안 닿아 좀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데 집이 험해졌다면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치지 다른 사람이 집을 고칩니까?

자기네 몸뚱이가 속에 있는 생명체들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들어 있기 위해서 집을 지었고 형상을 시켰고,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들고 있는 자기네 주인들이 고쳐야지, 아니, 집이 집을 고칠 수가 있나? 그러니깐 모든 것을 거기가 다 맡겨라 이런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일체 만물만생과도 가설이 돼 있지마는 일체제불하고도 직결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 몸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함미 없이 하라 이런 소립니다. 함미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서 하신다면 남한테 미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고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류는 발전하고 있는지...

문 신문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과 빈라덴의 알카에다가 미국에 항복했단다.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은 몇 천년 된 부처님 상을 대포로 때려부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고요, 미국은 그런 텔레반을 테러를 비호했다고 또 팔레스타인은 지하드(성전)을 외치면서 자살공격을 감행하고 이스라엘은 돌로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을 탱크와 미사일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본토에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니 우주에서 막는 신무기를 개발한다고 하고 다른 나라를 반대하고 그렇단다.

우리 지구를 보면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데 몇 십 조 달러를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돈 천 원이 없이 굶어죽는 데요. 유사 이래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왜 싸우지 않고 지구의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사이좋게 사는 법을 찾지 못했을까요. 과연 우리 인류는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 우리가 진리를 학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배운다면 갈래갈래, 가지들 다 떨어져서 이름도 알아야 하고 모든 걸 배우지만 이런 참선입니다. 선(禪)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한데, 공부할 때도 한 군데로, 내면한 군데로 모아서 놔라 이런 뜻입니다. 모아서 놓지 않아도 한 군데도 놓으니까 모아서요? 그렇듯이 모두 일체 돌아가는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말하자면 그 천차만별의 일들을 어떻게 이름으로 지어서 다 말을 하겠습니까? 마는 일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마음에 집어 넣으면 거기서서만은 일체가 모두 돌아옵니다.

항상 누적되지 않게, 겁내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가 놓으라 그랬죠. 진짜로 믿고 거기가 놓으면 그냥 모두가 움직여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움직여지는 것만이고 능사가 아니라 안 움직여지는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나가려면 잠시라도 참나를 안 움직여지게 할 수 있어야만 움직여지는 거죠. 내가 먹어서 똥고 오줌은 거를 또 다들 먹고 또 내놔요. 내놓으면 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 또 먹기 때문에 항상 먹으면 나오고 서로 다 같이 먹습니다.

이 미묘한 도리를 우리가 알아서 행한다면 함미 없이, 모두 내가 하는 일이 없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심부름하고 관리인이고 집합소입니다. 난 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망가지도 "너희들이 고쳐서 살아." 이러는 거나 한가지죠.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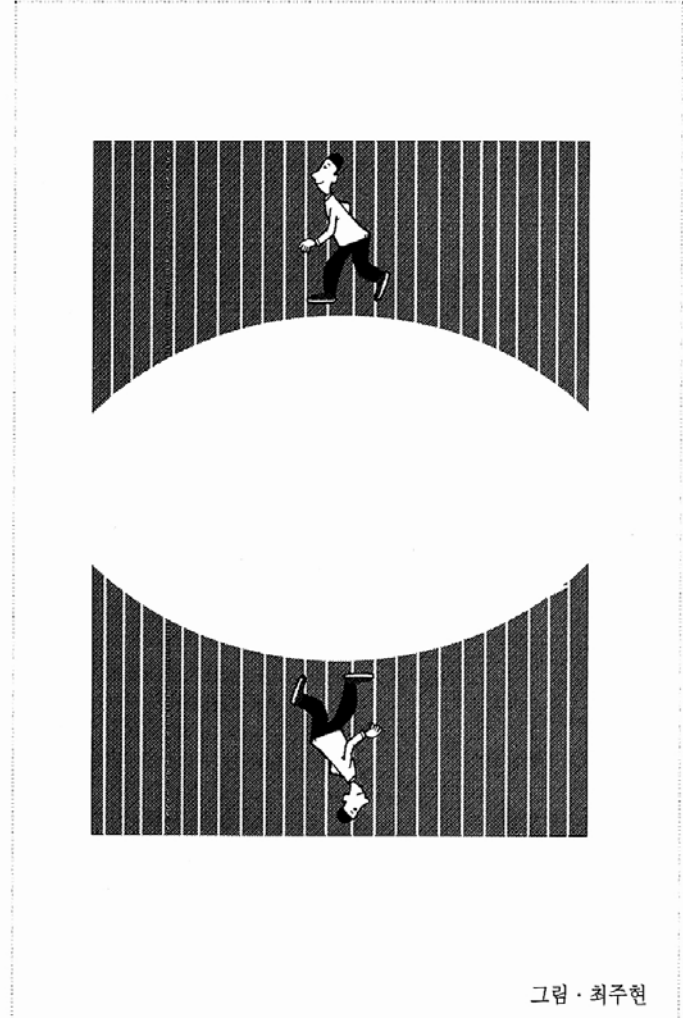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共生 · 共用 · 共食 깨치면 현실 그대로가 불국토

하라'를 어떻게 해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다 놓으라고 하니 이 세상을 살아 나가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놓고 함미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소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 몸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하는 거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몸 속의 생명들을 예를 든 겁니다. 보십시오. 혼자 한 겁니까? 심부름한 거지. 먹이기 위해서, 그 생명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못 벌게 되는 것도, 못 벌어서 굶주리게 하는 것도, 돈을 잘 벌어서 잘 먹이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혼자 한 겁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착하게 그냥 가만히 묵석처럼 있어라' 이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미 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함미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너가 한 게 아니라 진짜

거지, 누가 '곰작 않고 묵석처럼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마음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고정된 함미 없이 돌아가는 함미 없이 하는 것입니다.

물을 먹으면서도 먹는 사이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먹은 사이가 없습니다. 여럿이 먹었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물 한 모금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어딴 겁니까? 여럿이서 다 먹고 있고. 그외에 여럿이만 먹습니까? 내가 먹어서 똥고 오줌은 거를 또 다들 먹고 또 내놔요. 내놓으면 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 또 먹기 때문에 항상 먹으면 나오고 서로 다 같이 먹습니다.

이 미묘한 도리를 우리가 알아서 행한다면 함미 없이, 모두 내가 하는 일이 없이 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심부름하고 관리인이고 집합소입니다. 난 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망가지도 "너희들이 고쳐서 살아." 이러는 거나 한가지죠.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그건 왜냐하면 한 군데로 하나로 뭉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서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것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용도가 생긴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제각기 놓고 제각기 배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거기가 놓기만 하면 앞서에 입력된 건 다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되는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는 그 원력이 바로 그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겨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진을 하다가 후퇴를 해야 하기도 하고, 후퇴를 했다가 전진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도 전진하는 것도 둘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팔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다면 내면에서 자기의 뜻이, 가르치는 뜻이, 길잡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상을 온전히 알면 그대로 여여하게 불국토인 것이고, 모르면 불국토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깨우쳐서 둘이 아닌 도리를 감지하고 또는 이 세상이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共用)으로 돌아가고 공식(共食)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국토가 아니다, 불국토다 하는 것을 비유를 하자면,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금속도 다 똑같죠? 그런데 사람들이 용도에 따라서 끌어들여 쓰는 데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것은 저런 것이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력은 다 똑같은데 말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은 다 똑같은데 모습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달라지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사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불국토고, 아주 자유스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우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콧방귀 탁 귀고 심곳이 웃고 돌아가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죽으면 어찌나, 우리 식구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냥 발발발 떨고 떨떨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콧방귀 귀고 웃으면서 돌아서는 사람하고, 죽을까 봐 발발 기고, 살지 못할까 봐, 채일까 봐, 맞아 죽을까 봐 발발 기다면 그것은 불국토가 아니라 지옥일 테죠. 그래서 생각 하나 차이로 불국토나, 지옥이 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국토도 한 마음에 있는 것이고, 지옥도 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일체 만물만생을 다 이끌어서 서로가 상응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하나에 일체가 달려 있는 것이니 내 마음을 발견해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나 하나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니 이 묘법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벗어나고파...

문 스님, 마음의 도리를 생의 목표로 알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청년회법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사람이 몸을 벗으면 강을 건너게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찌 몸을 꾸었는데 몸에 내 앞이 강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뛰어들이지를 못하고 주위를 서성거리기만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얼마나 허무하고 제 자신이 한심스럽던지 한동안 자책이 들면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내 몸이 정말 있는 줄로만